



기해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안군 일원에서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전통민속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부안군, 정월대보름 맞아
마을 곳곳에서 민속행사 다채

2019년 기해년 정월대보름(2월 19일)을 맞아 부안군 일원에서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전통민속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정월대보름은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세시명절로써 부안군에서는 다양한 제사와 의례가 전해지고 용출감기, 달집태우기 등 우리 고유

의 민속놀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부안 썬키로드 인근에서 부안 밀알회에서 주관하는 전통민속놀이 체험행사가 개최됐으며 3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해 달집태우기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18일에는 수성당, 내소사 등 부안 고유의 문화사적에서 대보름 행사가 개최됐으며 용궁제사, 각종 문화행사 등이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월대보름인 오늘은 부안군 마을 곳곳에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전통대보름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부안 매창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부안문화모임 도울에서 주관하는 전통문화행사가 개최되며 전래놀이, 제기차기, 딱매치기, 사물놀이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부안군은 행사장 등에 구제역 방역소독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축산인들의 참여는 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왜?...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5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 개정판이 나왔다. 법조계의 어두운 실태가 담긴 책이다.

김 교수는 판검사·변호사·브로커·법원 공무원·경찰·기자·결혼소개업자 등 법원 안팎의 23명을 면접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법조계 엘리트, 이른바 ‘신성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2009년 출간 뒤 10년간 많은 독자들이 찾았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조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한 글을 실었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등 초판 출간 이후 법조계에 일어난 변화들을 넣었다.

김 교수는 “로스쿨이 출범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다”고 지적한다. “‘신성가족’들은 공고하게 법원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고, 로스쿨 졸업생들은 신성가족의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유의미한 세력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래간 해결되지 못한 병폐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가 엉망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쇠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짚는다. “위기를 거치면서 법조계는 늘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 사법개혁을 위해 판검사 증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 구조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젊은 세대 법조인들이 될 것이다” 380쪽, 1만7000원, 참비 /뉴스시스



문화재 2010곳 위험요인 일제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청이 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주요 문화재 20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대상이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방기가 포함되는 2~4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와 방재설비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해빙기 대비 문화재 안전상태, 소방설비와 방범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시설 안전상태 등 문화재·방재설비 내용,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마련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와 점검하는 업무다. 올해는 특히 중요 문화재 120개소에 대해 문화재청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소방 분야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급성과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다. 시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를 지원해 이른 시일에 조치한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예산 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시스



전진희 개인전 전시작품 팔도미인도.

“찬란한 오방색의 화려함 느껴보세요”

전진희 개인전,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전진희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며, 소남 연목회 서예전, 大田연과추사연구회 그룹전, 부안군청, 부안경찰서 초청전 등 다수의 그룹전과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공모전에서 수차례 수상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금강산도 10폭 병풍으로 전국민화공모대전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2016-17 전라북도 민화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민화는 궁중, 사대부, 사찰, 집안을 꾸며주는 장식품으로 쓰이거나 다양한 연원을 바라는 목적으로 그려진 실용성이 강한 그림이다. 대개 민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풍속과 습관, 민간신앙, 생활양식 등 그 상징성이 뚜렷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흑과 백, 빨강, 파랑, 노랑 등 오방색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색감을 뽐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내재되어 있는 찬란한 오방색의 화려함과

섬세함,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색채를 지닌 우리 민화를 감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먹물을 단순히 검은색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붓을 잡은 세월만 46년이 지난 작가는 “농(濃), 중(中), 담(淡)에 또 농, 담이 있고 검은색도 희석하면 갈빛이 나고 회색빛을 내며 한줄기 찾아낸 햇살 같은 은빛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먹색처럼 많은 색을 품고 있는 색은 흔치 않다고 말한다.

몽당부이 세월 따라 쌓은 산처럼 작가의 민화의 시작도 어려웠다. 퇴필여산미족진(退筆餘山未足珍) 독서만민시통신(讀書萬卷始通神), 쓰고 버린 몽당부이 산처럼 쌓였어도 보배로운 작품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만권의 책을 읽어야 비로소 귀신과도 통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절감했던 작가는 한 작품 한 작품의 테크닉이나 예술성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내면을 더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